

【 2019.4.3(수) 강원일보 】

◇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



장은 3일 오전  
11시 도회 회의  
실에서 열리는  
제1차 운영위원  
회를 주재.

## 1분기 종합건설 수주액 500억원 감소

2120억원 전년비 19% 줄어

수주건수 320건→277건

올해 1분기 강원 종합건설업계의 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20%에 육박하는 500억원이 감소, 도내 건설업계의 공사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.

2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회 회원건설사들의 건설수주액(투찰금액 기준)은 2120억9520만여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(2621억8073만여원)보다 500억8553만여원(19.1%) 감소했다. 이기간 수주건수가 320건에서 277건으로 43건(13.4%)감소,공사 일감이 줄면서 수주액도 감소한 것이다.

지난 1월에는 수주액이 638억5731만여원으로 전년동월(531억738만여

원)보다 107억4993만여원(20.2%) 증가했다. 같은기간 수주건수가 62건에서 51건으로 9건 줄었지만,전년대비 평균 공사단가가 높게 나타난 결과다.

하지만 지난 2월과 3월 수주액은 모두 줄면서 1분기 수주실적도 감소세로 마감했다. 지난 2월 수주액은 469억8896만여원으로 전년동월(1058억1672만여원)보다 588억2775만여원(55.5%) 감소했고,지난달에도 1012억4891만여원의 수주액을 기록,전년동월(1032억5662만여원)보다 20억770만여원(1.9%) 줄었다. 신관호